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76263

2014년 8월
교육학석사(무용교육)학위논문

#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정서 및 수행만족 간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위 재 연

#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정서 및 수행만족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s between Passion, Emotions,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Dance Students

2014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위 재 연

dCollection @ chosun

#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정서 및 수행만족 간의 관계

지 도 교 수　　임 지 형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무용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위 재 연

dCollection @ chosun

# 위재연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미 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준 희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임 지 형 (인)

2014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dCollection @ chosun

목 차

ABSTRACT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5

3. 연구문제 및 가설 ····· 5

4. 연구의 제한점 ····· 6

5. 용어정의 ····· 7

II. 이론적 배경 ····· 10

1. 이원론적 열정이론 ····· 10

2. 학습 상황에서 정서경험 ····· 13

3. 수행만족과 결정요인 ····· 17

III. 연구방법 ····· 20

1. 연구대상 ····· 20

2. 조사도구 ····· 21

3. 연구절차 ····· 23

4. 자료분석 ····· 24

IV. 결과 ····· 25

1. 측정모형평가 ····· 25

2. 상관분석 ····· 28

3. 연구모형평가 ····· 29

4. 다집단분석 ····· 33

dCollection @ chosun

V. 논의 ····· 38
1. 측정모형평가 ····· 38
2. 상관분석 ····· 39
3. 연구모형평가 ····· 39
4. 다집단 분석 ····· 41
제6장 결론 및 제언 ····· 43
1. 결론 ····· 43
2. 제언 ····· 44

국문요약 ····· 46
참고문헌 ····· 48
부록: 설문지 ····· 55

dCollection @ chosun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1
표 2. 설문지의 문항구성 ····· 21
표 3. 29문항 측정모형의 기술통계량 ····· 26
표 4.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27
표 5. 잠재변인의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계수 ····· 28
표 6.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의 결과 ····· 29
표 7. 구조모형의 직·간접 효과 및 매개효과 ····· 31
표 8. 무용경력 집단 간 다집단 분석 결과 ····· 33
표 9. 무용경력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비교 ····· 35

dCollection @ chosun

<그 림 목 차>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 6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 30
그림 3. 7년 이하 무용경력 집단의 경로계수 ····· 36
그림 4. 8년 이상 무용경력 집단의 경로계수 ····· 37

dCollection @ chosun

# ABSTRACT

## The Relationships between Passion, Emotions,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among High School Dance Students

Jae-yeon, Wi
Advisor : Prof. Ji-hyoung Lim
Major in Danc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Based on the Dualistic Model for Passion for Activ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not only to investigate a casual relationships between passion for dance, emotions, and subjective performance satisfaction after the classes among high school dance students, and also to compare the invariance of hypothesized structural model across the groups.

Participants were 311 female high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t of questionnaires measuring students' passion for dance, emotional experiences during the classes,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after the classes. For the data, a seri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multi-group analysis were conducted.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dance students' harmonious passion enhance positive emotions and

dCollection @ chosun

decrease negative emotions. But both students' harmonious passion and positive emotions do not influence on the level of their subjective performance satisfaction after the dance classes.

2. Dance students' obsessive passion enhanc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Students' negative emotions experienced during the classes decrease the level of subjective performance satisfaction after the classes, whereas obsessive passion for dance facilitate decrease students' level of subjective performance satisfaction.
3.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female students' passion for dance, emotional experiences, and subjective performance satisfaction after the classes is variant depending on their dance careers. Especially, students' dancing over eight years with harmonious passion is supposed to experience their performance as more satisfied compared to those dancing less than 7 year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lthough dance students'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experienced during the dance classes didn'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ssions and subjective performance satisfaction, their harmonious and obsessive passion for dance are related to students' emotional experiences. Especially,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is associated with the decreased performance satisfaction.

Key words: dance education, passion for dance, emotions, performance satisfaction, well-being

dCollection @ chosun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아가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는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인 측면이 고르게 발달되어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인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학교교육에서도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정의적, 심동적인 측면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는 전인교육을 중요시여기고 있다. 이것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신체적·정신적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소연, 2009).

이정희(2008)는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육체적 성숙 및 지적·정서적 발달과 함께 독립의존의 갈등, 자아정체성의 확립, 저항과 비판의식 등의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권이종(2000)은 청소년기는 다른 어느 발달시기보다도 개개인의 정체감이 가장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체감을 확실히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친구집단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인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해 나아가는 시기이며,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아동기와는 달리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 판단능력 등을 자발적, 독립적으로 형성시켜 나아가고자 하며,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능력을 발견하고, 계발하여 이것을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아가는 일생의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성인기와는 다르게 부모의 보호와 통제, 영향력 하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반영하여 행동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청소년기 학생들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형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생각과 가치가 부모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dCollection @ chosun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신재은(1999)은 부모나 다른 성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동기까지의 발달적 과업이라면 청소년기에는 활동, 영향, 지지의 원천으로 우정관계의 영향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때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 학생들은 부모와의 관계보다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 주고, 행동을 함께 해줄 수 있다고 믿는 또래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

특히 무용은 인지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 것을 신체를 통해 표출하기 때문에 조화로운 신체발달과 성장의 심동적인 측면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이것이 예술 뿐 아니라 생활에까지 옮겨져 실천될 때 정의적인 측면의 발달까지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육완순과 이희선(1992)은 무용을 단순한 신체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육체로서 정신을 표현하는 가장 인간적인 예술이라고 보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신체가 정신을 반영하여 생각이나 감정, 사상, 가치관 등을 내재하고 있으며, 신체를 통해 나타나고 표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열정이란 어떤 활동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강력한 동기적 자원이다(Forest et al., 2011). Vallerand 등(2003)의 이원론적 열정모델에 의하면, 조화열정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진해서 자율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강한 동기적 힘이며, 강박열정은 그 활동에 대하여 개인을 통제하고 하는 수 없이 참여하도록 만드는 강한 동기적 힘을 의미한다.

두 가지 유형의 열정 중에서 조화열정은 선수들의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반면에, 강박열정은 부정적 정서와 우울한 기분과 연관되어 있다(Vallerand et al., 2003).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에도 입증되고 있다. 가령, Lafreniee, Jowett, Vallerand, Donahue와 Lorimer(2008)는 조화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예측하는 변수이며, Philippe, Vallerand, Houlfort, Lavigne와 Donahue(2010)는 조화열정이 긍정적 정서와 정적으로 부정적 정서와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강박열정은 부정적 정서와 정적인 관계가



dCollection @ chosun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무용 맥락에서도 열정과 관련변인과의 관계도 부분적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는 무용 열정이 탈진(임지형, 박중길, 2012)과 부상(Rip, Fortin & Vallerand, 2006), 중도포기(Walker, Nordin-Bates, & Redding, 2012)를 가져오며, 강박열정이 조화열정보다 연습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유진, 정꽃님, 2008; 유진, 김화경, 정꽃님, 2009; Mullen, Davis, & Polatajko, 2012). 교사의 멘토링(김승일, 박세미, 2011)과 교수행동(김재승, 2012), 동기 분위기 지각(백민경, 2011), 목표성향(유진, 정꽃님, 2008)은 열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정서는 열정을 갖고 있는 무용수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서는 무용활동을 통한 대화의 학습, 신념체계, 사회관계, 사회변화 등 같은 인간 생활의 여러 측면들과 함께 얽혀있다(Hanna, 1988). 무용에서의 정서는 기교나 감정표현 등을 무용현상(공연상황, 무용 수행상황 등)을 통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더욱 포괄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여러 차원에서의 정서 특성을 경험하게 된다.

무용에서의 정서적인 효과로서 Maslow(1970)는 신체활동으로부터 경험되는 긍정적인 정서의 상태를 묘사적 개념으로서 공포, 억압, 불안이 제거되는 최상의 행복과 충족의 찰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추예연(2004)에 의하면, 무용에서의 정서적 심리효과는 개인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대한 지각 및 타인과 환경에 대한 개인적 의미, 태도, 느낌 등이 있다고 한다. 또한 욕구의 충족으로 나타나는 유쾌한 감정, 도취감, 만족감 등의 요소가 높았다. 긍정적인 정서를 가졌다면 무용에 대한 자신감과 안정감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체육학 또는 무용학 분야에서 사회 심리적 요인들의 영향력이나 상호관련성을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무용수는 정서 상태에 따라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 될 수도 있고, 참가하기 싫고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용이 좋아서 하다가도 결과에 따라 정서나 기분상태가 변하게 되어 무용 후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용수행 만족은 무용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욕구에 따른 개인의 인식으로



dCollection @ chosun

정의되며, 이는 공연이나 무용 활동 시 불안과 긴장을 해소시켜 무용능력향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자신의 신체를 소홀히 하는 무용전공 대학생은 자신의 체력과 체격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스트레스와 자신감이 낮으며, 무용수행 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안진주, 2014).

따라서 무용에 대한 열정과 정서경험이 고등학생들의 수행만족간의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가정이 본 연구를 통해 탐색된다면, 앞으로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수행만족에 미치는 열정과 정서경험의 역할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예측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되며,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 사료된다.

## 2. 연구의 목적

자신이 좋아해서 선택한 활동에 대한 개인의 열정은 그 참여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무용과 스포츠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적응적인 기능을 가진 조화열정과 비교하여 강박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요구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연수, 박중길, 2013). 그럼에도 두 가지 열정 유형이 정서를 통해 주관적인 수행만족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Vallerand 등(2003)이 제안한 이원론적 열정모델을 고등학교 무용 상황에 적용하여 무용전공 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열정과 정서, 그리고 수행만족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두 번째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정서, 그리고 주관적인 수행 만족도 간의 관계가 고등학생들의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는 데에 두었다.



dCollection @ chosun

### 3. 연구문제 및 가설

이 연구에서 무용에 대한 열정과 정서, 수행만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두 가지의 연구문제와 그에 따른 세 가지의 연구가설이 설정되었다.

연구문제 1. 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열정이 정서를 통해 수행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 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조화 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강박 열정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무용실기 수업 후 고등학생들의 주관적인 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열정과 정서의 영향력은 이들의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

가설 3. 무용실기 수업 후 고등학생들의 주관적인 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열정과 정서의 영향력은 이들의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림 1>은 이 연구에서 설정된 가설적 연구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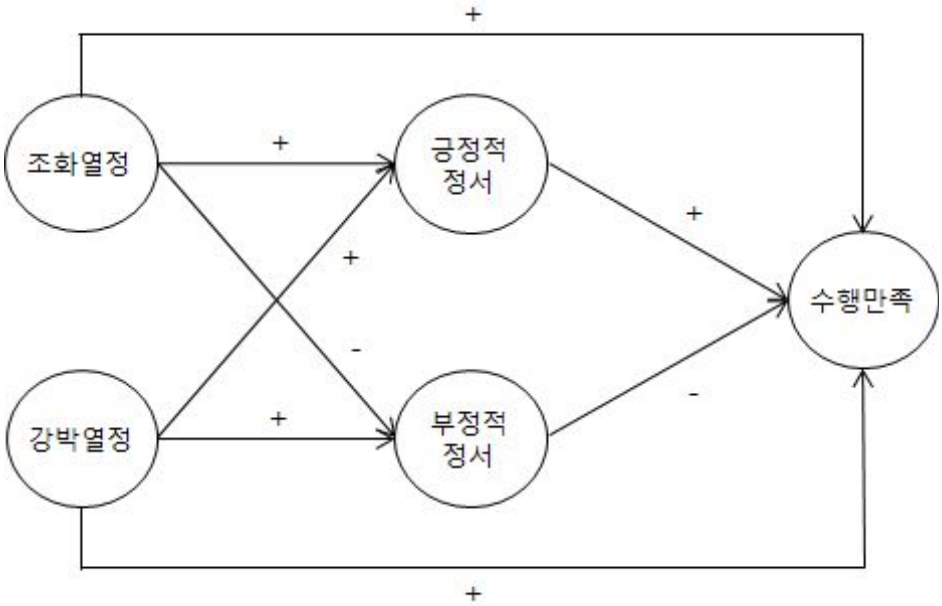


그림 1. 가설적 연구모형

## 4.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성격 변인으로서 무용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정서와 수행과 관련된 주관적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범위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정서와 수행만족은 무용실기 시간에 경험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 경험과 수업 후에 느끼는 주관적 만족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둘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정서와 수행만족은 설문조사 시점을 기준



dCollection @ chosun

으로 최근 4주 동안 실시된 실기수업 상황으로 제한되었다.

셋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정서와 수행만족은 교사변인, 수업내용, 수업구조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수업 환경과 개인차 변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 5. 용어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무용 열정, 정서, 그리고 수행만족이다. 이들 용어의 주요 개념과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 1) 무용 열정 (Passion for Dance)

열정이란 사람들이 좋아하고 중요성을 발견하는 활동에 대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강력한 접근성향을 의미한다(Vallerand 등, 2003). 이 연구에서는 무용열정을 무용전공자가 무용을 좋아하고 그 중요성을 발견하여 무용수행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강력한 접근 성향을 말하며, 이 연구에서는 조화열정, 강박열정을 무용열정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 2) 정서 경험 (Emotional Experience)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배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잡한 상태, 즉 사건에 반응함으로써 나타나는 신체변화의 지각을 말한다(Watson & Clark, 1984). 이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정서의 두 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3) 수행만족 (Performance Satisfaction)

수행만족은 무용활동 수행 시 스스로가 인지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에 대한 수행만족과 역할에 대한 수행만족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 II. 이론적 배경

### 1. 이원론적 열정이론

#### 1) 열정의 개념

열정이란 자신의 목표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좋아하는 대상이나 활동을 향한 높은 수준의 접근 경향성을 말한다. 최근의 이르러 일부 심리학자들이 열정의 동기적 측면에 관심을 기울였다. 열정이란 자신의 정체감을 내면화하는 과정에 의해서 강박적 열정과 조화로운 열정으로 구분된다. 즉 강박적 열정은 열정적 활동을 통제된 방식으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반면, 조화로운 열정은 열정적 활동을 자율적 방식으로 내면화 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Goldberg, 1986; Marsh & Collet, 1987).

Vallerand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강박열정은 통제할 수 없는 흥분감 및 수용감 혹은 자존감과 같은 활동에 몰입함으로 인해 내적 심리 상태 및 외적 상황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며, 개인을 통제하려고 강요하는 상황을 유발시킨다. 또한 자신이 참여하는 여러 활동들에 있어 갈등을 유발시키고 부적절하고 불편한 심리상태를 초래한다. 조화열정은 개인에게 동기적 힘과 활력을 제공한다. 조화열정은 개인적 활동을 어쩔 수 없이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편안함 혹은 자연스런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Rousseau, Vallerand, Ratelle, Mageau & Provencher(2002)는 도박열정을 강박적 열정과 조화로운 열정으로 구분하였다. 도박과 관련된 강박적 열정은 불안감, 부적정동, 개인에게 도박행위에 대한 압력 및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야기 시킨다. 또한 도박의 빈도, 도박 관련 피해, 병적 도박의 정도 등과 관련되어 있다. 강박적열정은 도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안감 및 부적 정동을 유발하고 도박을 마친 후 개인에게 나타나는 죄책감, 불안감, 다양한 부적 정동 등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신경증적 경향성, 대인관계의 갈등, 우울감, 지각된 스트레스 등과 관련되어 있다.



dCollection @ chosun

조화로운 열정은 불안감과 같은 부적 정동을 유발하지 않으며, 도박 관련 부적 정동, 도박 중독, 도박 후 발생되는 부적결과들과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조화로운 도박열정은 정서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으며 도박에 대해서 보다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적 속성을 지니며 개인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였다(Ratlle, Vallerand, Mageau, Rousseau & Provencher, 2004; Rousseau et al., 2002; Vallerand et al., 2003).

Vallerand와 그의 동료 등은 동기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재개념화하여 다양한 장면(예: 도박, 여가활동, 예술, 일, 스포츠)에서 실증적 연구들을 전개하고 있다(Vallerand & Miquelon, 2007). 이들은 열정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중요성을 발견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활동에 대한 강력한 성향"(Vallerand et al., 2003)으로 정의 하였다.

### 2) 열정과 관련변인

Vallerand 등(2006)은 열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인간의 자율적 성향과 통제적 성향을 들었다. 두 성향들은 각각 열정을 발생시키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대변되며, 자율적 성향은 조화열정을 예측하지만 통제적 성향은 강박열정을 예측한다고 가정한다. 이어 조화열정은 적응적 결과들(adaptive outcomes)을, 강박열정은 덜 적응적(less adaptive)이거나 또는 부적응적 결과들(malad adaptive outcomes)을 이끌 것이라 예측한다.

선행연구를 보면, 스포츠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둔 대학생들의 자율적 성향과 통제된 성향은 각각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을 이끌었고(Vallerand et al., 2006). 학생들의 수행상황에서의 조화열정은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과 자발적 연습(delibrate practice)을 정적으로 예측했지만 강박열정은 주관적 웰빙을 부적으로 예측했다(Vallerand, Salvy, mageau, Elliot, Denis, Grouzet, & Blanchard, 2007). 미식축구 팬들의 열정연구에서도 강박 열정만이 파트너관계 충돌(partner relationship conflict)과 긍정적으로



dCollection @ chosun

관계했다(Vallerand et al., 2008).

열정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열정이 예측하는 결과적 요인들 중 현재까지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은 정서이다. 열정적이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열정적인 경향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서는 열정과 높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열정이 정서와 구별되는 점은, 열정이 어떤 활동을 향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좋아하고 참여하는 것이라면, 정서는 잠깐 동안의 또는 순간 느끼는 감정을 의미한다(Vallerand, 2008).

열정과 정서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조화열정은 긍정정서와, 강박열정은 부정정서와 정적으로 관련된 것을 볼 수 있다. 대학 미식축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운동에 참가하는 시즌동안 조화열정은 긍정적 정서를, 강박열정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켰다(Vallerand et al., 2003). 활동 참여와 비 참여시, 대학생들의 열정과 긍정적 정서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열정은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조화열정은 높은 수준의 긍정정서를 경험하지만, 강박열정은 긍정정서와 관련이 없었고, 열정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때의 강박열정은 긍정정서의 감소를 가져왔다(Mageau & Vallerand, 2007).

축구심판들의 열정과 정서, 몰입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조화열정은 긍정정서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게임 중 몰입을 경험했다. 그러나 강박열정은 긍정정서, 몰입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뿐 아니라 게임 중 부정적 정서경험과 정적으로 관련했다(Philippe et al., 2010). 요가 수련자들의 열정과 정서의 관계에서도 역시 조화열정은 긍정정소와는 정적으로, 부정정서와는 부적으로 관계했고, 강박열정은 부정정서와 정적으로, 긍정정서와는 아무런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Vallerand et al., 2008).

최근의 열정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웰빙이나 삶의 만족, 수행성취 그리고 대인관계 등과 같은 긍정적 변인들과의 관계로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열정적인 참여자와 비 열정적 참여자에 따른 웰빙의 차이에서 조화열정은 쾌락주의 웰빙(hedonic well-being)과 행복주의 웰빙(eudaimonic well-being) 모두에 기여



dCollection @ chosun

했지만, 강박열정자나 비 열정적 참여자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조화열정만이 주관적 활력(subjective vitality)을 증가시켰고 강박열정이나 비 열정적 참여자는 주관적 활력과 아무 관련이 없었다(Philippe et al., 2010). 노인들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정서, 주관적 웰빙(subjective well-being)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 조화열정은 긍정정서와 주관적 웰빙의 증가와 관계됐다. 그러나 강박열정은 부정적 정서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의 감소를 이끌었다. 교사의 열정(passion for teaching) 연구에서도 조화열정은 일 만족(work satisfaction)의 증가와 피로(burnout symptom)의 감소를 가져왔지만 강박열정은 이들 변인과 관련이 없었다(Vallerand, 2008).

이와 같은 결과들은 스포츠 상황의 운동선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됐다. 농구,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수구선수들의 열정은 모두 자발적 연습(deliberate practice)과 수행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었고, 주관적 웰빙은 조화열정과는 정적인 관계였으나, 강박열정과는 부적으로 연관됐다(Vallerand et al., 2008).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화열정은 숙달목표와 자발적 연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후 높은 수준의 수행으로 연결됐지만, 강박열정은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에 정적으로 관련되고, 수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Vallerand, 2007).

국외에서의 활발한 열정연구와 함께 국내에서도 신체활동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에서의 열정연구는 최근 증가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선수나 운동을 전공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정과 정서, 생활만족, 성취목표성향, 수행(경기력) 등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연구(강문영, 2011; 강영국, 2010; 김석일, 2009; 임낙철, 김석일, 2009)한 것과 지체장애인의 열정과 정서, 시합전략, 생활만족, 운동중독 등의 관계연구(임낙철. 2010; 임낙철, 김석일, 2009), 무용열정과 관련된 연구(유진 등, 2009; 유진, 정꽃님, 2008; 이동숙, 2011) 등이 있다.



dCollection @ chosun

## 2. 학습 상황에서 정서경험

### 1) 정서의 개념

정서란 단어의 어원적 근원을 보면 원래 라틴어 Emovere(감동시키다, 뒤흔든다, 흥분시키다)에서 나온 말로써'e'는 밖으로 와 'Movere'는 움직이다(김경희, 1995)란 합성어로 처음에는 '터키족의 다양한 이동'을 나타낼 때 '이동'의 단어로 표기했다.

정서는 개인이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반응하고 변화를 시도함에 있어 정신적·심리적 복잡한 상태를 말한다. 관련의식, 목표지향, 자아개념에 따라 정서가 발생되고 개별적인 정서로 구분된다. 정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재된 개념에 정서는 인간의 생존 능력을 높여주고 적응을 도와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서의 사전적 정의는 비교적 강하게 단시간 동안 계속되는 감정, 비교적 약하고 장시간 계속되는 정취와 구분한다. 정서는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된다는 점에서 정동이라고도 한다. 희노애락, 애증, 공포, 쾌락 등의 정서이며 의식적으로는 강한 감정이 중심이 되며 신체적으로는 내장적인 생활기능의 변화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개인의 감정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정서는 다른 행동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동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박선혜, 2007).

또한 정봉교(2003)는 정서는 주관적이고 생물학적이며, 목적적이며,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고, 하나 즐거움과 같이 특정 방식으로 우리가 느기게 되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서란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움직인다)는 의미였다가 나중에는 물리적으로 혹은 동요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후 더 확장되어 사회적 혹은 정치적 동요를 의미하게 되면서 개인에게 있어 동요 및 각성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서라는 개념은 어떤



dCollection @ chosun

사람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여졌다(변화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소현, 김문수, 2001).

이러한 정서는 유쾌하거나 불유쾌한, 온유하거나 강인한, 자주 변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을 고양시켜 주거나 방해하는 것과 같은 주관적인 행동과 관계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두려움, 화, 수치심, 모욕감, 기쁨, 슬픔 등을 정서로 보고 있다. 최근의 임상적 견해에 따르면 정서적인 장애가 정신건강, 개인의 적응, 개인의 행복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형섭, 2010).

정서와 비슷한 개념으로는 감정(Affect)과 기분(Mood)이 있다. 감정은 문화적 가치와 결부된 가장 단순한 심리상태인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쾌·불쾌의 내면적 경험이며 감정이 발달되고 단순한 심리상태인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은 쾌·불쾌의 내면적 경험이며 감정이 발달되고 세련된 상태로서 지적인 감정을 정도(Sentiment)라고 한다. Scherer(1984)는 감정을 분노와 슬픔같은 정서, 우울이나 도취와 같은 기분, 좋음과 싫음과 같은 성향적인 상태(dispositional state)에서의 최상위개념으로 보며, 기분은 정서적 상태로서 정서보다 강도가 약하며 지속성이 길 때를 기분이라고 말 할 수 있는데, 학자들 간에는 분류하는 방법도 일정하지 않아서 이 세가지를 모두 정서라는 용어로 혼용하기도 한다(김훈기, 2001).

조은경(1995)은 정서는 대상 또는 어떤 상황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지각으로 인해 경험되는 심적 생태로서 신체의 변화와 표현 행동을 가져오는 특정행동이나 계획의 우선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며, 이외에 많은 학자들 또한 정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주장했으며 Syria(2000)는 어떤 행동을 하게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 즉 삶의 전지(battery)와 같은 것이 정서라 하였으며, Oatley와 Jenkins(1996)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정서를 말하고 있다.



dCollection @ chosun

첫째, 성서는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사, 즉 목표와 관계있는 사건들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평가할 때 주로 유발된다. 관심이 해결되면 긍정적인 정서가 경험되고, 방해를 받으면 부정적인 정서가 경험된다. 둘째, 정서의 핵심은 활동하고자 하는 행동의 준비성과 계획의 실행과 촉진이다. 정서는 위급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진행 중인 다른 정신 과정이나 행동과 경쟁하게 하거나 방해하기도 한다. 셋째, 정서는 신체적변화 표현 현상, 행위를 수반하는 전형적인 정신적 상태(state)로 체험된다는 것이다. 즉 정서의 핵심은 행위 준비도 라고 간주하며, 행위도는 개인에게 유용할 뿐 아니라 실제적 관계, 사회적관계, 대인 관계에서도 한결같이 나타난다(홍준희, 2001). 이와 같이 정서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2) 정서경험과 관련변인

정서와 관련된 변인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들이 지각하는 학습환경적 요소이다. 예를 들면, 기존의 연구는 지각된 학습환경과 과제 지속행동의 관계에서 사회 인지적 동기와 정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유의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즉, 수업시간에 학생들은 과제가 도전할 만하고 기량향상과 또래와의 협력이 강조되는 환경을 지각할 때, 그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높은 자신감과 유쾌한 정서경험이 촉진되고, 이는 과제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기대와 내적으로 동기화된 자기조절을 이끌어 냄으로써 더 많은 노력과 더 오래 과제를 지속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정세희, 2014).

특히, 도전적인 학습환경은 유쾌한 정서경험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과제에 대한 내적 흥미를 불러일으켜 직접적으로 자율적인 자기조절 행동을 이끌어



dCollection @ chosun

내지만, 지각된 자기위협은 부정적 정서경험과 통제된 행동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각된 학습환경과 정경험 과제 지속과의 관계에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믿음, 결과기대, 정서경험, 자율적-통제된 행동조절이 다중적인 매개역할을 하지만, 동기와 정서, 인지는 양방향적이며 호혜적 관계이다(Linnenbrink, 2006). 즉, 자기효능감이 정서에 영향을 주지만, 정서경험은 그 유인가와 각성수준, 개인의 인지적 각성에 따라 후에 자기효능감 믿음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Bandura, 1997).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도전할 만한 것으로 지각하고 교사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즐거움을 경험하고 더욱 노력하지만, 동료와의 경쟁과 실력부족으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이 위협을 받거나 교사로부터 꾸중과 질책을 받을 때는 실수에 대한 걱정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자신의 수행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박준희, 2010; Tessier, Saranzin, & Ntoumanis, 2010).

이와 같이, 학습환경과 교수행동 지각은 무용을 전공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유쾌한 정서 상태를 가져오거나 반감시키며(최효진, 2009; 최효진, 이숙재, 2010; 이숙재, 최효진, 박중길; 2009),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박중길, 2004; 박중길, 이선애, 2003; 조진희, 2007).

기존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사는 질적으로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수업 분위기를 도전할 만한 것으로 지각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위협하지 않도록 적절한 과제 선정과 난이도의 조절을 통해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 3. 수행만족과 결정요인

### 1) 수행만족의 개념

일반적으로 만족이라는 용어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만족감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만족감은 과거와 현재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기대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는데(박정희, 1997) 만족에 관한 많은 정의를 두가지 견지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족이 한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사이의 일의 정도라는 견지이다. 이 기대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과거 경험에 의해 내면화된 내적기준과 실제의 보상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일치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다고 한다(나상영, 1985). 즉 과거경험에 비춰 받던 만큼의 보상수준과 일치하거나 성과 수준이 그 이상일 경우 만족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김지은, 2011).

둘째, 만족을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만족과 불만족 혹은 행복과 불행 그리고 즐거움 대 즐겁지 않음의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견지에서는 기대의 보상과 일치 또는 정의하는 특성으로보다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로 보아진다(이시은, 1993).

김주희(2001)는 만족이란 행동의 판단을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것, 생각할 것, 기대하는 것, 또는 합리적으로 열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비교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만약 위에서 제시한 내용과 일치한다면 결과는 만족일 것이고, 불일치하는 것이 크다면 불만족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정준(1999)는 만족에 대한 요구체계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만족감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Eitzen(1976)은 만족을 선택한 대체안과 자신의 신념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평가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수행만족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dCollection @ chosun

개인의 태도, 신념, 가치, 요구, 또는 타인과의 비교수준 등의 여러요인에 대하여 평가적이고 감정적인 심리상태의 충족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수행만족은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 또는 수행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얻게되는 개인의 정서 상태로 정의한다(박성희, 2002).

### 2) 수행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예술적 평가에서 무용수행만족은 개인이 인지하는 만족의 정도를 말한다. 무용수행만족은 주관적으로 경험되어진 반응으로 정의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이며 요구 체제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 따라서 무용수행만족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김지은, 2011).

무용수행만족의 하위 구조 요인은 심리적, 기술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만족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나 욕구에 의하여 동기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복합적인 언어개념이라고 하였다(김혜정, 2003).

이러한 견해에서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적 지각이 무용수행만족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은 무용수들의 신체적 자기지각능력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관점에서 최근 많은 무용학자들의 무용수행력 평가의 객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정의권, 2007).

윤혜정(1999)은 무용이 움직임이라는 형태적 관점과 수행(무대공연)이라는 관점을 놓고 볼 때 스포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력의 심리적 변인과 큰 차이가 없겠지만, 더욱 감정적 몰입이 필요한 예술적 활동이기 때문에 스포츠와는 다른 정서적 변인이 존재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자신의 수행한 일에 대한 차이가 학습만족도에 중요한 연관을 맺고 있다. 예술적 관점에서 무용의 평가는 과학과 별도에



dCollection @ chosun

접근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무용수행에 대한 관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남진희, 2000). 무용수행시 많은 무용수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본인 스스로의 수행 미숙에 의해서나 혹은, 타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스스로에 대한 무용수행만족을 느끼고 있는가는 이후 무용수행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수행만족을 과제에 대한 수행만족과 역할에 대한 수행만족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첫째, 과제에 대한 수행만족은 자신이 무용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받아지는 과제에 대한 기회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습득하며 얼마만큼 만족하는가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의미한다(정세진, 2009). 이러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잘 이루어 졌을 때 무용수들은 무용수행에 대하여 보다 큰 흥미를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큰 만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역할에 대한 수행만족은 무용공연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내고 성공적인 공연을 수행 할 수 있으며 또한, 자신 스스로에게 얼마만큼 만족하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즉, 역할이란 그대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역할수행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역할수행이라고 하며(이형행, 1992) 조직 구성원들은 역할수행자에게 그 지위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기대하게 되고 역할수행자는 그 기대에 부응하려 하는 것이다(신미경, 2007).



dCollection @ chosun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예술고등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학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호남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1개교씩 편의 표집되어 전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고생 수는 총 328명이지만, 이 중에서 이중으로 응답하거나 누락, 또는 신뢰롭지 못한 응답자로 판단되는 17명의 설문지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총 311명의 설문지가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여고생 311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발레 전공자는 107명, 한국무용 전공자는 119명, 그리고 현대무용 전공자는 85명 순이었다. 이들의 나이는 15세에서 18세까지로 분포하였으며, 평균 나이는 16.30세이었다. 무용경력은 1년에서 12년까지로 나타났고, 평균경력은 7.37년이었다.

<표 1>에 학생들의 전공, 나이, 그리고 중앙값(median) 7년을 기준으로 구분한 무용경력 집단별 사례수와 백분위(%)가 제시되어 있다.



dCollection @ chosun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311)

| 구 분 | | 사례수 | % |
|---|---|---|---|
| 무용전공 | 발레 | 107 | 34.4 |
| | 한국무용 | 119 | 38.3 |
| | 현대무용 | 85 | 27.3 |
| 나이 | 15세 | 65 | 20.9 |
| | 16세 | 119 | 38.3 |
| | 17세 | 94 | 30.2 |
| | 18세 | 33 | 10.6 |
| 무용경력 | 7년 이하 | 160 | 51.4 |
| | 8년 이상 | 151 | 48.6 |

##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무용전공, 나이, 무용경력)을 포함하여 무용 열정과 정서, 그리고 주관적인 수행만족도를 측정하는 3개의 질문지가 이용되었다. 각 질문지의 문항구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문항구성

| 문항 | | 문항수 | 반응형식 |
|---|---|---|---|
| 무용 열정 질문지 | 조화열정 | 5 | 7점 |
| | 강박열정 | 6 | |
| 정서 질문지 | 긍정적 정서 | 10 | 5점 |
| | 부정적 정서 | 10 | |
| 수행만족 질문지 | 단일 문항 | 1 | 0 - 100점 |



dCollection @ chosun

1) 무용 열정 질문지

여고생의 무용에 대한 열정은 기존의 연구들(임지형, 박중길, 2012; 유 진, 정꽃님, 2008; 정연수, 박중길, 2013)이 무용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사용한 열정 척도(Passion Scale; Vallerand et al., 2003)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국문판 질문지는 조화로운 열정을 측정하는 6개 문항(예; 1. 무용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끔 해준다.)과 강박적인 열정을 측정하는 5개 문항(예; 7. 나는 무용에 푹 빠져 있다.)을 포함하여 총 11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생들은 각 문항에 대하여 7점 Likert 척도(1점=전혀 아니다, 7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열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서 질문지

무용실기 시간에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정서는 정용각(2000)이 번안한 국문판 긍정적 부정적 정서 질문지(PANAS-X; Watson & Clark, 1994)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이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무용을 전공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기존의 연구들에 의해 평가된바 있다(서차영, 장보경, 2013; 유 진, 정꽃님, 2008; 유 진, 김화경, 정꽃님, 2009).

국문판 정서 질문지는 원본과 동일하게 20문항이지만, 무용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들에서는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10개 문항(예; 긍정적 정서=활기찬, 상쾌한 등)과 부정적 정서(예; 불안한, 화가난 등)를 측정하는 7개 문항을 포함하여 2요인 1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형으로 응답하며, 각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가 높은 것은 의미한다.



dCollection @ chosun

3) 수행만족 질문지

실기수업 후 여고생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수행만족은 박중길과 유진(2013)이 체육고등학교 남녀 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Pensgaard와 Duda(2003)의 수행만족 질문지를 통해 평가되었다. 이 질문지는 1문항의 비율척도로서 학생들은 "지난 4주 동안 실기수업 후 여러분 자신의 수행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점수에 ✔표를 하십시오."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0=전혀 만족하지 않음"에서 "100=완전히 만족함"까지 10점 단위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 3. 연구절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첫째, 연구주제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지와 학위논문 검색을 실시하여 연구목적과 문제, 가설, 연구범위, 방법 등이 결정되었다.

둘째, 수집된 설문지는 심리측정 전문가 교수의 내용 타당도를 거친 후 3개 예술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는 학교별 무용부장 또는 실기강사의 도움을 받아 실시되었으며, 각 교사는 학생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작성요령, 그리고 연구참여 동의서와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소개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 작성은 실기수업이 끝나기 10분 전에 일괄적으로 시작되었고,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셋째, 수집된 자료는 일련의 검토과정을 거쳐 연구목적에 따라 전산처리가 이루어졌다.



dCollection @ chosun

## 4. 자료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5.0과 AMOS 7.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수집된 자료가 정성 분포의 가정을 충족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2.0), 왜도(≤2.0), 첨도(≤7.0) 등이 검토되었다.

둘째, 각 질문지의 타당도 및 전체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평가하기위해 최대우도방식을 이용하는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이 실시되었다.

셋째,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열정과 정서 하위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 다변량 분석(one-way MANOVA)이 실시되고, 측정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 Cronbach's alpha로 추정하는 내적 일관성 분석이 실시되었다.

넷째, 무용전공 여고생들의 열정과 정서, 수행만족 간의 인과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 실시되었다. 모든 모델의 적합도는 $\chi^2$, CFI(≥0.90), TLI(≥0.90), RMSEA(≤0.50)를 통해 평가되었다.

다섯째, 무용전공 여고생들의 열정과 정서, 수행만족 간의 인과적 관계가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무용경력의 중앙값에 해당되는 7년을 기준으로 삼아 7년 이하를 낮은 집단으로, 8년 이상을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다집단 분석(multi-group analysis)이 실시되었다.

모든 통계적 유의성은 $\alpha$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dCollection @ chosun

# IV. 결 과

## 1. 측정모형 평가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2개의 질문지가 무용을 전공하는 여고생들의 열정과 정서를 타당하게 측정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기초 기술통계량이 검토된 후 최대우도방식을 이용하는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먼저, 무용전공 여고생들이 응답한 자료가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시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가 실시되었다. <표 3>은 전체 29개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가 제시되어 있다.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조화열정 문항의 평균점수는 4.65에서 5.21까지, 강박열정에서는 3.35에서 4.17까지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긍정적 정서의 평균점수는 3.13에서 3.67까지, 부정적 정서의 평균은 2.34에서 2.87까지의 값을 나타냈다. 1문항의 수행만족 평균점수는 59.90이었다.

다음으로, 수행만족을 제외하고 각 문항의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면, 표준편차는 .76에서 1.52까지로 그 기준치인 2.0을 초과하지 않았다. 왜도는 -.63에서 .52까지의 범위로 기준치인 2.0을 초과한 문항은 없었으며, 첨도는 -.68에서 .82까지의 범위로 역시 기준치인 7.0을 초과한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자료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다변량 정규분포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표 3. 29문항 측정모형의 기술통계량

| 잠재변인 | 문항 | 반응범위 | 평균 | 표준편차 | 왜도 | 첨도 |
|---|---|---|---|---|---|---|
| 조화 열정 | hp1 | 1 - 7 | 4.96 | 1.22 | -.30 | -.01 |
| | hp2 | 1 - 7 | 4.96 | 1.22 | -.22 | -.24 |
| | hp3 | 1 - 7 | 5.21 | 1.29 | -.52 | -.15 |
| | hp4 | 1 - 7 | 5.05 | 1.28 | -.50 | .18 |
| | hp5 | 1 - 7 | 4.84 | 1.30 | -.37 | -.04 |
| | hp6 | 1 - 7 | 4.65 | 1.22 | -.37 | .34 |
| 강박 열정 | op1 | 1 - 7 | 4.05 | 1.45 | -.18 | -.23 |
| | op2 | 1 - 7 | 3.91 | 1.52 | -.01 | -.34 |
| | op3 | 1 - 7 | 4.17 | 1.40 | -.12 | -.05 |
| | op4 | 1 - 7 | 3.67 | 1.25 | -.06 | .32 |
| | op5 | 1 - 7 | 3.35 | 1.36 | .09 | -.14 |
| 긍정적 정서 | pa1 | 1 - 5 | 3.67 | .76 | -.36 | .35 |
| | pa2 | 1 - 5 | 3.47 | .91 | -.28 | -.19 |
| | pa3 | 1 - 5 | 3.40 | .87 | -.10 | .02 |
| | pa4 | 1 - 5 | 3.65 | .78 | -.20 | .27 |
| | pa5 | 1 - 5 | 3.34 | .94 | -.16 | -.27 |
| | pa6 | 1 - 5 | 3.13 | .95 | -.00 | -.32 |
| | pa7 | 1 - 5 | 3.67 | .85 | -.11 | -.48 |
| | pa8 | 1 - 5 | 3.59 | .81 | -.34 | .17 |
| | pa9 | 1 - 5 | 3.29 | .81 | -.25 | .82 |
| | pa10 | 1 - 5 | 3.52 | .83 | -.22 | .73 |
| 부정적 정서 | na1 | 1 - 5 | 2.75 | .99 | .13 | -.45 |
| | na2 | 1 - 5 | 2.70 | 1.05 | .16 | -.68 |
| | na3 | 1 - 5 | 2.69 | 1.08 | .19 | -.54 |
| | na4 | 1 - 5 | 2.34 | 1.13 | .52 | -.59 |
| | na5 | 1 - 5 | 2.44 | 1.11 | .42 | -.56 |
| | na6 | 1 - 5 | 2.87 | 1.05 | -.05 | -.68 |
| | na7 | 1 - 5 | 2.45 | 1.11 | .46 | -.45 |
| 수행만족 | | 0 - 100 | 59.90 | 17.32 | -.63 | .90 |



dCollection @ chosun

앞서, 다변량 정규분포성 가정에 충족됨에 따라 2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표 4>에 무용 열정, 정서, 그리고 전체 측정모형의 주요 적합도인 $\chi^2$, 자유도(*df*), 자유도의 비(Q), TLI, CFI, RMSEA 지수가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11문항으로 구성된 열정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수용할 만하였으며, 17문항의 정서 측정모델의 적합도 역시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체 28문항으로 이루어진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모두 일반 기준치를 충족하여 수용할 만하였다.

각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을 보면, 조화열정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은 .617에서 .903까지로 나타났으며, 강박열정을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은 .710에서 .919까지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10개의 문항은 .506에서 .791까지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7개의 문항은 .555에서 .807까지의 요인 부하량을 나타내었다.

표 4.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 모델 | $\chi^2$ | *df* | Q | TLI | CFI | RMSEA |
|---|---|---|---|---|---|---|
| 무용열정 모델 | 339.92 | 43 | 7.90 | .912 | .932 | .071 |
| 정서 모델 | 387.51 | 118 | 3.28 | .902 | .918 | .076 |
| 전체 측정모델 | 1046.73 | 344 | 3.04 | .905 | .917 | .078 |

$^{***}$ $p < .001$



dCollection @ chosun

## 2. 상관분석

측정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잠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내적 일관성 계수(α), 그리고 6개 잠재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성이 분석되었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1문항의 수행만족 변인을 제외하고 각 잠재변인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03에서 .718까지의 범위로 모두 .70 이상의 계수를 나타내어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조화열정은 긍정적 정서와 높은 정적 상관($r$=.62)을 나타낸 반면에, 부정적 정서와는 낮은 부적 상관($r$=-.12)을 나타내었다. 대조적으로 강박열정은 긍정적 정서($r$=.45)와 부정적 정서($r$=.14)와 모두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또한 긍정적 정서는 수행만족과 정적 관계($r$=.26)를 보인 반면에, 부정적 정서는 수행만족($r$=-.13)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은 모두 .29에서 .31까지로 수행만족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표 5. 잠재변인의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계수

| 잠재변인 | 평균 | 표준편차 | α | 1 | 2 | 3 | 4 | 5 |
|---|---|---|---|---|---|---|---|---|
| 1. 조화열정 | 4.94 | 1.05 | .718 | 1 | | | | |
| 2. 강박열정 | 3.83 | 1.22 | .705 | .50** | 1 | | | |
| 3. 긍정적 정서 | 3.47 | .62 | .703 | .62** | .45** | 1 | | |
| 4. 부정적 정서 | 2.60 | .83 | .709 | -.12* | .14* | .05 | 1 | |
| 5. 수행만족 | 59.60 | 17.32 | - | .29** | .31** | .26** | -.13* | 1 |

*$p$<.05 ** $p$ < .01



dCollection @ chosun

## 3. 연구모형 평가

### 1) 구조모형 평가

이 연구에서 설정된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이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모형에서 외생변수로부터 내생변수의 방향으로 설정된 8개 경로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평가되었다. <표 6>은 각 경로의 비표준화 계수(Estimates), 표준오차(S.E.), 기각역(C.R.), 유의수준(*P*), 그리고 표준화 계수(SRW)가 제시되어 있다.

표 6.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의 결과

| 경로 | | Estimates | S.E | C.R. | *P* | SRW |
|---|---|---|---|---|---|---|
| 조화열정 | → 긍정적 정서 | .435 | .060 | 7.292 | .001 | .572 |
| 조화열정 | → 부정적 정서 | -.321 | .091 | -3.529 | .001 | -.272 |
| 강박열정 | → 부정적 정서 | .262 | .070 | 3.738 | .001 | .285 |
| 강박열정 | → 긍정적 정서 | .114 | .035 | 3.231 | .001 | .192 |
| 긍정적 정서 | → 수행만족 | 3.772 | 2.448 | 1.541 | .123 | .126 |
| 부정적 정서 | → 수행만족 | -3.278 | 1.129 | -2.904 | .004 | -.170 |
| 조화열정 | → 수행만족 | .604 | 1.936 | .312 | .755 | .027 |
| 강박열정 | → 수행만족 | 4.659 | 1.277 | 3.647 | .001 | .262 |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설적 연구모형에 설정된 전체 8개의 경로 중에서 긍정적 정서로부터 수행만족에 이르는 경로(Estimate=3.772, S.E.=2.448, C.R.=1.541, $p$=.123) 및 조화열정에서 부정적 정서에 이르는 경로(Estimate=.604, S.E.=1.936, C.R.=.312, $p$=.755)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6개의 경로는 모두 예측된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dCollection @ chosun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표 6>에 제시된 6개 경로의표준화 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2개의 경로(조화열정 → 수행만족, 긍정적 정서 → 수행만족)는 점선으로 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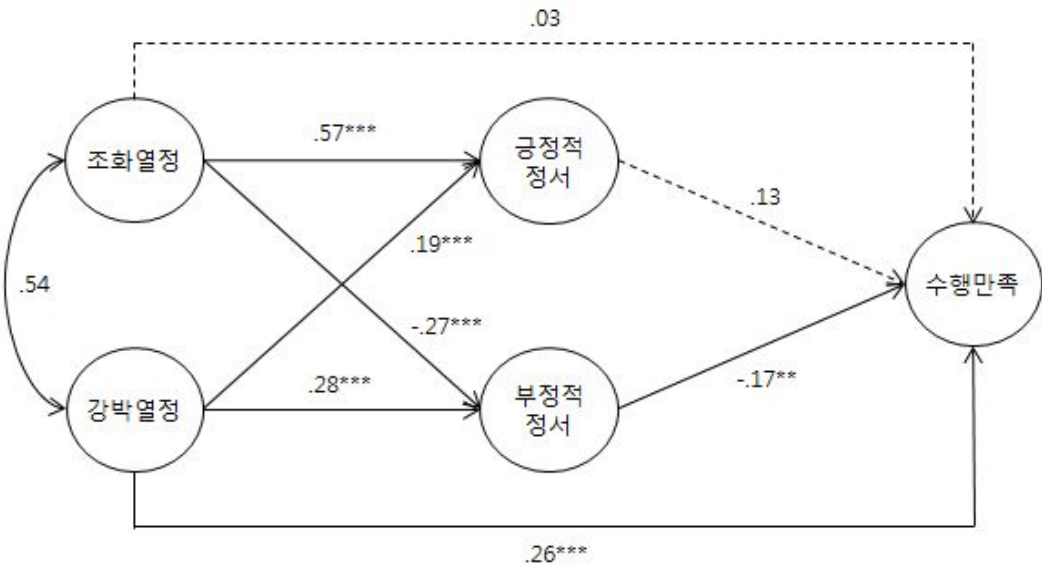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의 경로계수($^{*}p$<.05, $^{**}p$<01, $^{***}p$< .001)

각 경로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됨에 따라, 구조모형의 적합도가 평가되었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1087.46, $df$=369, $p$<.001, Q=2.94, TLI=.903, CFI=.916, RMSEA=.079로 모든 지수가 그 기준치를 충족시켜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양을 의미하는 다중상관자승(SMC) 값을 확인한 결과, 긍정적 정서는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에 의해 분산의 48%가, 부정적 정서는 강박열정과 조화열정에 의해 분산의 7%가, 그리고



dCollection @ chosun

수행만족은 열정과 정서에 의해 분산의 15%를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직·간접 효과 및 매개효과 검증

연구문제 1(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열정이 정서를 통해 수행만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에 설정된 각 경로의 총효과, 직·간접 효과와 정서의 매개효과가 분해되었다.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 구조모형의 직·간접 효과 및 매개효과

| 경로 | | 총효과 | 직접 효과 | 간접 효과 | 매개 효과 |
|---|---|---|---|---|---|
| 조화열정 | → 긍정적 정서 | .572** | .572** | 0 | - |
| 조화열정 | → 부정적 정서 | -.272** | -.272** | 0 | - |
| 강박열정 | → 부정적 정서 | .285** | .285** | 0 | - |
| 강박열정 | → 긍정적 정서 | .192** | .192** | 0 | - |
| 긍정적 정서 | → 수행만족 | .126 | .126 | 0 | - |
| 부정적 정서 | → 수행만족 | -.170** | -.170** | 0 | - |
| 조화열정 | → 수행만족 | .145 | .027 | .118 | 기각 |
| 강박열정 | → 수행만족 | .238** | .262** | -.024 | 기각 |

*$p$<.05, **$p$< 01, ***$p$<.001

연구문제 1에서 가설 1(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조화 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을 검증하기 위해 조화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경유해 수행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토되었다.

<표 7>에서 보듯이, 조화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통해 수행만족에 미치는



dCollection @ chosun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조화열정 → 수행만족; $p$=.083). 간접효과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 정서가 조화열정과 수행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에 조화열정은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고, 긍정적 정서는 수행만족에 영향을 주지만, 조화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조화 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된 연구가설 1은 기각되었다.

이어서, 연구가설 2(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강박 열정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강박열정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 수행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표 7>에서 보듯이, 강박열정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 수행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강박열정 → 수행만족; $p$=.432). 이 결과는 부정적 정서가 강박열정과 수행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강박열정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부정적 정서는 학생들의 수행만족 수준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강박 열정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된 연구가설 2도 기각되었다.



dCollection @ chosun

## 4. 다집단 분석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2(무용실기 수업 후 고등학생들의 주관적인 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열정과 정서의 영향력은 이들의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무용경력 7년을 기준으로 낮은 집단(7년 이하=160명) 과 높은 집단(8년 이상=151명)으로 구분하여 다중집단 분석이 실시되었다.

두 경력 집단을 대상으로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각 집단별로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이 각각 실시되었다. 그 결과 7년 이하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897.74, *df*=369, *p*=.001, Q=2.43, TLI=.906, CFI=.922, RMSEA=.075로 일반 기준치를 충족시켜 수용할 만하였으며, 8년 이상의 집단의 구조모형의 적합도 역시 $\chi^2$=654.87, *df*=369, *p*=.001, Q=1.77, TLI=.936, CFI=.947, RMSEA=.062로 매우 수용할 만하였다.

따라서 다중집단 분석을 통해 두 경력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두 개의 모형(등가 비제약모델, 등가 제약모델)이 설정되었다. 비제약모델은 두 집단의 모든 모수치를 자유롭게 추정하도록 설정한 것이며, 등가 제약모델은 측정 가중치가 두 집단에 걸쳐 동일하도록 설정한 것이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되었다.

표 8. 무용경력 간 다집단 분석 결과

| 모형 | $\chi^2$ | *df* | Q | TLI | CFI | RMSEA | $\Delta\chi^2$ | $\Delta df$ |
|---|---|---|---|---|---|---|---|---|
| 비제약모델 | 1552.57*** | 738 | 2.10 | .908 | .912 | .060 | - | - |
| 등가제약모델 | 1600.59*** | 770 | 2.07 | .911 | .919 | .059 | 48.02* | 32 |

*$p$<.05, *** $p$ < .001



dCollection @ chosun

<표 8>에 제시된 것처럼, 두 집단의 모든 모수치(직접 경로계수)를 자유스럽게 추정하도록 모형(비제약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chi^2$=1552.57, *df*=738, *p*=.001, Q=2.10, TLI=.908, CFI=.912, RMSEA=.060). 이 결과는 두 집단의 구조모형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모형에서 각 구조계수가 두 집단에 걸쳐 동일하도록 설정한 구조계수 모형(등가제약모델)을 평가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만하였다($\chi^2$=1600.59, *df*=770, *p*=.001, Q=2.07, TLI=.911, CFI=.919, RMSEA=.059).

위의 비제약모델과 등가 제약모델 간의 $\chi^2$차이는 $\Delta\chi^2$=48.02, $\Delta df$=32, *p*=.0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각 경로에 설정된 직접효과 계수가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무용실기 수업 후 고등학생들의 주관적인 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열정과 정서의 영향력은 이들의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연구모형에 설정된 구조계수가 두 경력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어떤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8개 경로에 대하여 두 경력집단 간 비제약모형과 등가 제약모형 간의 $\chi^2$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조화열정에서 수행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만 두 경력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6.30, $\Delta df$=1, *p*=.012). 나머지 7개 직접 경로계수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무용경력이 7년 이하인 고등학생들의 경우 조화열정이 수행만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beta$=-.174, *p*>.05), 무용경력이 8년 이상인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조화열정이 수행만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beta$=.262, *p*<.05).



dCollection @ chosun

표 9. 무용경력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비교

| 경로 | | $\chi$ | $\chi^2$ | 저경력 | 고경력 |
|---|---|---|---|---|---|
| 조화열정 | → 긍정적 정서 | 1599.89 | .70 | .545(.684)$^{***}$ | .314(.423)$^{***}$ |
| 조화열정 | → 부정적 정서 | 1600.09 | .50 | -.290(-.235)$^{*}$ | -.351(-.309)$^{**}$ |
| 강박열정 | → 부정적 정서 | 1600.50 | .09 | .203(.221)$^{*}$ | .323(.362)$^{**}$ |
| 강박열정 | → 긍정적 정서 | 1599.95 | .64 | .070(.119) | .173(.297)$^{**}$ |
| 긍정적 정서 | → 수행만족 | 1598.06 | 2.53 | -3.480(.121) | 5.709(.185) |
| 부정적 정서 | → 수행만족 | 1598.04 | 2.55 | -2.442(-.131) | -3.793(-.188)$^{*}$ |
| 조화열정 | → 수행만족 | 1594.29 | 6.30$^{*}$ | -3.990(-.174) | 6.015(.262)$^{*}$ |
| 강박열정 | → 수행만족 | 1599.83 | .76 | 7.403(.433)$^{***}$ | .470(.026) |

주: 경력에 제시된 값은 비표준화(표준화) 계수임

$^{*}p<.05$, $^{**}p<$ 01, $^{***}p<.001$

<그림 3>과 <그림 4>는 위의 <표 8>에 제시된 무용경력 집단별 표준화 경로계수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무용경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전체 8개 경로 중에서 4개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조화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고 부정적 정서는 감소시키며, 강박열정은 부정적 정서를 촉진시키지만 긍정적 정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박열정이 수행만족을 증가시키는 반면, 조화열정은 수행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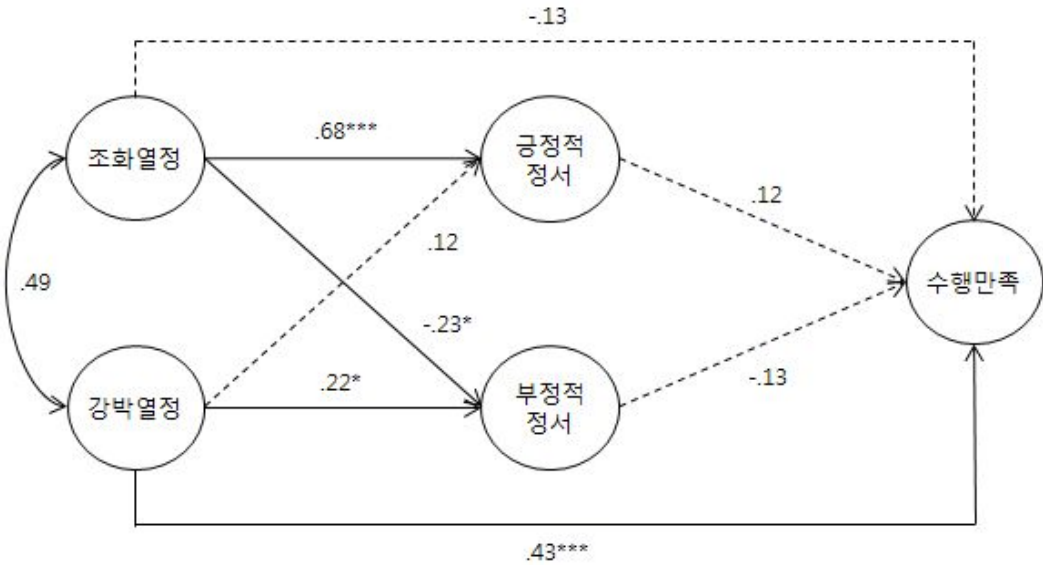


그림 3. 7년 이하 무용경력 집단의 경로계수($^{*}p<.05$, $^{***}p<.001$)

<그림 4>에서 무용경력이 8년 이상인 고등학생들을 살펴보면, 조화열정은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면서 부정적 정서는 감소시키는 반면, 강박열정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정서는 수행만족 수준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긍정적 정서가 고등학생들의 수행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학생들의 조화열정은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수행만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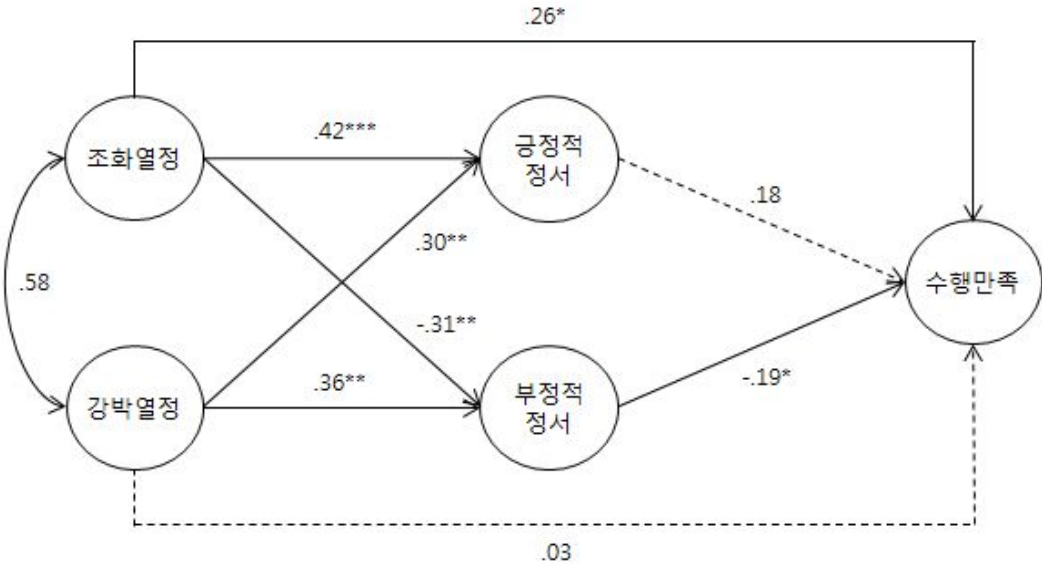


그림 4. 8년 이상 무용경력 집단의 경로계수($^{*}p<.05$, $^{**}p<.01$, $^{***}p<.001$)



dCollection @ chosun

#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Vallerand 등(2003)이 제시한 이원론적 열정모델을 대학 무용 상황에 적용시켜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정서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열정과 정서가 고등학생들의 수행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고등학생들의 수행만족에 미치는 무용에 대한 열정과 정서경험에 대한 설명량과 상대적 기여도가 크지 않았지만, 이들 인지적, 정서적 변인들이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 자체로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 생각된다. 이에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교육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1. 측정모형 평가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조화열정 문항의 평균점수는 4.65에서 5.21까지, 강박열정에서는 3.35에서 4.17까지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긍정적 정서의 평균점수는 3.13에서 3.67까지, 부정적 정서의 평균은 2.34에서 2.87까지의 값을 나타냈다. 1문항의 수행만족 평균점수는 59.90이었다.

다음으로, 수행만족을 제외하고 각 문항의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면, 표준편차는 .76에서 1.52까지로 그 기준치인 2.0을 초과하지 않았다. 왜도는 -.63에서 .52까지의 범위로 기준치인 2,0을 초과한 문항은 없었으며, 첨도는 -.68에서 .82까지의 범위로 역시 기준치인 7.0을 초과한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는 자료가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다변량 정규분포성 가정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 2. 상관분석

측정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각 잠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내적 일관성 계수(α), 그리고 6개 잠재변인들 간의 상호 관계성이 분석되었다.

잠재변인의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계수 1문항의 수행만족 변인을 제외하고 각 잠재변인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703에서 .718까지의 범위로 모두 .70 이상의 계수를 나타내어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조화열정은 긍정적 정서와 높은 정적 상관($r$=.62)을 나타낸 반면에, 부정적 정서와는 낮은 부적 상관($r$=-.12)을 나타내었다. 대조적으로 강박열정은 긍정적 정서($r$=.45)와 부정적 정서($r$=.14)와 모두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또한 긍정적 정서는 수행만족과 정적 관계($r$=.26)를 보인 반면에, 부정적 정서는 수행만족($r$=-.13)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은 모두 .29에서 .31까지로 수행만족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 3. 연구모형 평가

연구모형에서 외생변수로부터 내생변수의 방향으로 설정된 8개 경로의 방향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평가되었다.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의 결과에서 가설적 연구모형에 설정된 전체 8개의 경로 중에서 긍정적 정서로부터 수행만족에 이르는 경로(Estimate=3.772, S.E.=2.448, C.R.=1.541, $p$=.123) 및 조화열정에서 부정적 정서에 이르는 경로(Estimate= .604, S.E.=1.936, C.R.=.312, $p$=.755)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6개의 경로는 모두 예측된 방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에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1087.46, *df*=369, *p*<.001, Q=2.94, TLI=.903, CFI=.916, RMSEA=.079로 모든 지수가 그 기준치를 충족시켜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내생변수가 외생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양을 의미하는 다중상관자승(SMC) 값을 확인한 결과, 긍정적 정서는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에 의해 분산의 48%가, 부정적 정서는 강박열정과 조화열정에 의해 분산의 7%가, 그리고 수행만족은 열정과 정서에 의해 분산의 15%를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모형의 직·간접 효과 및 매개효과는 연구문제 1에서 가설 1(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조화 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을 검증하기 위해 조화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경유해 수행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토되었다.

“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조화 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된 연구가설 1은 기각되었다.

연구가설 2(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강박 열정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해 강박열정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 수행만족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무용실기 시간에 고등학생들의 강박 열정이 부정적 정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행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설정된 연구가설 2도 기각되었다.



dCollection @ chosun

## 4. 다집단분석

무용경력 간 다집단 분설결과 두 집단의 모든 모수치(직접 경로계수)를 자유스럽게 추정하도록 모형(비제약모델)을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chi^2$=1552.57, *df*=738, *p*=.001, Q=2.10, TLI= .908, CFI=.912, RMSEA=.060). 이 결과는 두 집단의 구조모형의 형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모형에서 각 구조계수가 두 집단에 걸쳐 동일하도록 설정한 구조계수 모형(등가제약모델)을 평가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할 만하였다($\chi^2$ =1600.59, *df*=770, *p*=.001, Q=2.07, TLI=.911, CFI=.919, RMSEA=.059).

위의 비제약모델과 등가 제약모델 간의 $\chi^2$차이는 $\Delta\chi^2$=48.02, $\Delta df$=32, *p*=.03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각 경로에 설정된 직접효과 계수가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따라서 "무용실기 수업 후 고등학생들의 주관적인 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열정과 정서의 영향력은 이들의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 3은 지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용경력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비교에서 8개 경로에 대하여 두 경력 집단 간 비제약모형과 등가 제약모형 간의 $\chi^2$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조화열정에서 수행만족에 이르는 경로에서만 두 경력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6.30, $\Delta df$=1, *p*=.012).

무용경력이 7년 이하인 고등학생들의 경우 조화열정이 수행만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beta$=-.174, *p*>.05), 무용경력이 8년 이상인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조화열정이 수행만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beta$=.262, *p*<.05).

무용경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등학생들의 경우, 전체 8개 경로 중에서 4개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조화열정이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고 부정적 정서는 감소시키며, 강박열정은 부정적 정서를 촉진시키지만 긍정적 정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dCollection @ chosun

강박열정이 수행만족을 증가시키는 반면, 조화열정은 수행만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용경력이 8년 이상인 고등학생들을 살펴보면, 조화열정은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면서 부정적 정서는 감소시키는 반면, 강박열정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동시에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적 정서는 수행만족 수준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긍정적 정서가 고등학생들의 수행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학생들의 조화열정은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수행만족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 연구에서 이원론적 열정모델(Vallerand et al., 2003)을 이용하여 무용전공 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열정과 정서, 그리고 수행만족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고, 이 인과적 관계가 고등학생들의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

두 가지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된 세 가지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과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조화열정은 실기 시간에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며 부정적 정서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조화열정과 긍정적 정서는 수업 후 학생들의 주관적인 수행만족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강박열정은 실기 시간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촉진시키며, 부정적 정서는 수행만족 수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강박열정은 수행만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정서, 그리고 수업 후 주관적인 수행만족 간의 인과적 관계는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8년 이상의 무용경력을 가진 고등학생들의 조화열정은 7년 이하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행만족을 경험한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이 실기시간에 경험하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가 열정과 수행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dCollection @ chosun

주지만, 무용에 대한 열정은 학생들의 정서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부정적 정서는 수업 후 경험되는 주관적인 만족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화열정을 가진 고등학생들과 비교하여, 강박적인 열정을 가진 고등학생일수록 자신의 수행에 만족하며, 무용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조화열정을 가진 고등학생일수록 자신의 수행에 만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제언

본 연구는 열정과 정서경험 및 수행만족과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 변인들이 고등학생들의 학년, 나이, 경력, 전공유형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 역시 대상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대상을 표집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수행만족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사용했지만, 무용전공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무용을 통하여 수행만족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후속 연구에서는 무용을 통한 동기부여, 몰입과 같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지만, 열정과 정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변수는 자기 정체성이다. 조화열정과 강박열정은 활동이 개인의 정체성으로 내면화되는 방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Vallerand et al., 2003).

결과적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무용활동을 통하여 생활에 있어 열정과 정서의 안정으로 수행만족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토대로 신체적 건강과 행복감



dCollection @ chosun

등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것도 열정과 정서의 역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dCollection @ chosun

#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Vallerand 등(2003)이 제안한 이원론적 열정모델을 무용수업에 적용시켜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열정과 정서, 그리고 수업 후 주관적인 수행만족 간의 인과적 관계를 분석하고(매개효과 검증), 수행만족에 대한 열정과 정서의 영향력이 고등학생들의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다(집단 간 경로계수 비교).

연구대상은 무용전공 여고생 311명이며, 평균 무용경력은 7.37년이었다. 자료는 열정, 정서 및 수행만족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구조방정식모델 분석과 다집단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조화열정은 실기 시간에 긍정적 정서를 촉진시키며 부정적 정서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조화열정과 긍정적 정서는 수업 후 학생들의 주관적인 수행만족 수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강박열정은 실기 시간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촉진시키며, 부정적 정서는 수행만족 수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강박열정은 수행만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의 열정과 정서, 그리고 수업 후 주관적인 수행만족 간의 인과적 관계는 무용경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8년 이상의 무용경력을 가진 고등학생들의 조화열정은 7년 이하의 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행만족을 경험한다.

이 연구 결과는 무용전공 고등학생들이 실기시간에 경험하는 긍정적



dCollection @ chosun

부정적 정서가 열정과 수행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지만, 무용에 대한 열정은 학생들의 정서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부정적 정서는 수업 후 경험되는 주관적인 만족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한다. 또한 조화열정을 가진 고등학생들과 비교하여, 강박적인 열정을 가진 고등학생일수록 자신의 수행에 만족하며, 무용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조화열정을 가진 고등학생이 자신의 수업행동에 더 만족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주요어: 무용교육, 무용 열정, 정서, 수행만족, 안녕감



dCollection @ chosun

## 참고문헌


강문영(2011). 체육전공 여대생의 운동열정에 따른 스트레스 강인성 및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영국(2010). 대학운동선수들의 열정과 운동정서 및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믿음사.

김석일(2009). 생활체육참여자의 목표성향에 따른 열정과 끈기. 한국스포츠심리 학회지 20(4), 61-76.

김승일, 박세미(2011), 대학생들의 무용 멘토링이 무용열정과 학습효과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학회지, 11(2), 13-23.

김재승(2012). 한국무용전공 대학생이 지각한 무용교수행동유형이 전공만족도 및 무용열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1(2), 853-852.

김지은(2011). 발레전공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무용수행만족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형섭(2010). 무용지도자의 리더십 유형이 학생들의 무용몰입과 무용정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혜정(2003). 무용전공여대생의 무용몰입경험과 무용참여만족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훈기(2001). 심리학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남진희(2000). 현대무용 수업의 언어적 교수행동과 실제 학습시간에 관한 연구. 무용학회논문집, 27, 141-158.

박선혜(2007). 무용수의 정서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소현, 김문수(2001). 동기: 이론. 연구. 그리고 활용. 서울: 시그마프레스.

박중길, 유 진(2013). 운동선수들의 인지평가와 수행만족: 정서조절과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4(2), 127-145.

백민경(2011). 무용전공 대학생의 동기분위기 지각과 성취목표성향, 무용열정




dCollection @ chosun

의 관계. 한국무용연구, 29(2), 165-183.
서차영, 장보경(2013). 무용수업 시 인지평가와 정서반응이 수행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2(5), 665-675.
손각중(2004). 무용공연 경력이 공연 전 정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용학회논문집, 38, 87-99.
신미경(2007). 무용전공자의 배역에 따른 역할수행과 역할갈등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 진, 김화경, 정꽃님(2009).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무용열정에 따른 정서변화. 한국무용과학회지, 19, 1-14.
유 진, 정꽃님(2008). 무용 열정의 이원론적 모형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9(1), 163-176.
윤혜정(1999). 무용학습경력이 성역할 정체감과 무용수행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동숙(2011). 무용열정의 심리적 개념구조: 한국무용 전공인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형행(1992). 교육행정. 서울: 문음사.
임낙철(2010). 지체장애선수의 정서, 열정, 생활만족, 시합전략.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낙철, 김석일(2009). 지체장애선수의 정서, 열정, 시합전략.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0(4), 111-27.
임지형, 박중길(2012). 무용 열정과 완벽주의 성향, 탈진경험과의 관계: 매개 및 조절효과.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3(1), 77-93.
정꽃님, 유 진(2012). 이원론적 스포츠 열정모형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1(4), 137-147.
정봉교(2003). 동기와 정서의 이해. 서울: 박학사.
정세진(2010). 대학 무용전공자의 성취목표성향이 무용수행 만족도와 무용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dCollection @ chosun

정세희(2014). 무용전공 대학생들의 열정과 정서, 정신건강 간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연수, 박중길(2013). 무용 열정과 정체성, 과제관여의 인과적 관계 및 모형 안정성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4(3), 23-38.

정용각(2000). 여가운동 참가자 성격의 Big-5 요인과 정서의 관계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9(4), 265-275.

정의권(2007). 대학생들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무용수행 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8(1), 93-102.

조은경(1995). 삶의 질의 심리학: 정서적 균형과 삶의 질. 춘계심포지움, 54(1), 324-223.

최효진(2009). 대학생의 무용 즐거움 자원과 저해자원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48 (6), 453-462.

홍준희(2001). 경쟁상태 불안의 선행변인으로서 자기불일치. 한국체육학회지, 40(1), 197-207.

Curran, T., Appleton, P. R., Hill, A. P., & Hall, H. K. (2011). Passion and burnout in elite junior soccer players: The mediating role of self-determined motivation.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2*, 655-661.

Deci, E. L., Eghrari, H., Patrick, B. C., & Leone, D. R. (1994). Facilitating internalization: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62*, 119-142.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Donahue, E. G., Rip, B., & Vallerand, R. J. (2009). When winning is everything: On passion, identity, and aggression in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 526-534.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crisis*. New York: Norton.



dCollection @ chosun

Fredricks, J. A., Alfred, C., & Eccles, J. (2010). Developing and fostering passion in academic and nonacademic domains. *Gifted Child Quarterly*, *54*(1), 18-30.

Goldberg, C.(1986). The interpersonal aim of creative endeavor.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0*(1), 35-48.

Lafrenière, M. A. K., Jowett, S., Vallerand, R. J., Donahue, E. G., & Lorimer, R. (2008). Passion in sport: On the quality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0*, 541-560.

Lafrenière, M. A. K., Jowett, S., Vallerand, R. J., & Carbonneau, N. (2011). Passion for coaching and the quality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The mediating role of coaching behavior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2*, 144-152.

Mageau, G. A., Vallerand, R. J., Rousseau, F. L., Ratelle, C. F., & Provencher, P. J. (2005). Passion and gambling: Investigating the divergent affective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gambl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5*, 100-118.

Mageau, G. A., & Vallerand, R. J. (2007). The moderating effect of passion on the relation between activity engagement and positive affect. *Motivation and Emotion*, *31*, 312-321.

Mageau, G. A., Vallerand, R. J., Charest, J., Salvy, S. J., Lacaille, N., Bouffard, T., & Koestner, R. (2009). On the development of harmonious and obsessive passion: The role of autonomy support, activity specialization, and identification with the ac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77*(3), 601-646.

Marsh, P., & Collect, P.(1987). Driving Passion: The psychology of the car. *Psychology Today, 21*, 16-24.

Mullen, R., Davis, J. A., & Polatajko, H. P. (2012). Passion in the



dCollection @ chosun

performing arts: Clarifying active occupational participation. *Work, 41*, 15-25.

Oatley, K, & Jenkins, J. M. (1996). *Understanding emotion.* Cambridge, MA: Blackwell.

Pensgaard, A. M., & Duda, J. L. (2003). Sydney 2000: The interplay between emotions coping, and the performance of olympic-level athletes. *The Sport Psychologist, 17*, 253-267.

Philippe, F. L., Vallerand, R. J., Houlfort, N., Lavigne, G. L., & Donahue, E. G. (2010). Passion for an activity and qual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Mediating role of emo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6), 917-932.

Ratelle, C. F., Vallerand, R. J., Mageau, G. A., Rousseau, F. C., & Provencher, P. (2004). When passion leads to problematic outcomes: A look at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20*(2), 105-119.

Rip, B., Fortin, S., & Vallerand, R.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passion and injury in dance students. *Journal of Dance Medicine & Science, 10*, 14-20.

Rip, B., Vallerand, R. J., & Lafrenière, M. A. K. (2012). Passion for a cause, passion for a creed: On ideological passion, identity threat, and extremism. *Journal of Personality, 80*(3), 573-602.

Rousseau, F. L., Vallerand, R. J., Ratelle, C. F., Mageau, G. A., & Provencher, P. J. (2002). Passion and gambling: Validation of gambling passion scale. (GPS).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8*, 45-66.

Scherer, K. R. (1984). On the nature and function of emotion: A component process approach. In K. R. Scherer & P. Ekman (Eds.), *Approaches to emotion* (pp. 293-31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Collection @ chosun

Séguin-Lévesque, C., Laliberté, M. N., Pelletier, L. G., Blanchard, C., & Vallerand, R. J. (2003). Harmonious and obsessive passion for the internet: Their associations with the couple's relationship.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 197-221.

Stenseng, F., & Dalskau, L.H. (2010). Passion, self-esteem, and the role of comparative performance evaluation.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2*, 881-894.

Stoeber, J., Childs, J. H., Hayward, J. A., & Feast, A. R. (2011). Passion and motivation for studying: Predicting academic engagement and burnout in university students. *Educational Psychology, 31*(4), 513-528.

Stryker, S., & Burke, P. J. (2000).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an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3*(4), 284-297.

Syria, P.(2000). *Performance-related emotion in highly skilled soccer players: Alongitudinal study based on IZOF model*. University of Jyraskyla.

Vallerand, R.J., Blanchard, C., Mageau, G.A., Koestner, R., Ratelle, C.F., Léonard, M., Gagné, M., & Marsolais, J. (2003). Les passions de l'âme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756-767.

Vallerand, R. J., & Miquelon, P. (2007). Passion for sport in athletes. In D. Lavalle & S. Jowett (Eds.), *Social psychology in sport* (*pp.* 249-262). Champaign, IL: Human Kinetics.

Vallerand, R. J., Rousseau, F. L., Grouzel, F. M. E., Dumais, A., Grenier, S., & Blanchard, C. M. (2006). Passion in sport: A look at determinants and affective experience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28*, 454-478.

Vallerand, R. J., Salvy, S. J., Mageau, G. A., Elliot, A. J., Denis, P. L.,



dCollection @ chosun

Grouzel, F. M. E., & Blanchard, C. (2007). On the role of passion in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75*(3), 505-534.

Vallerand, R.J. (2008). On the psychology of passion: In search of what makes people's lives most worth living. *Canadian Psychology, 49*, 1-13.

Vallerand, R.J., Mageau, G.A., Elliot, A.J., Dumais, A., Demers, M.A., & Rousseau, F. (2008). Passion and performance attainment in sport.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9*, 373-392.

Walker, I.J., Nordin-Bates, S, & Redding, E. (2012). A mixed methods investigation of dropout among talented young dancers. *Journal of Dance Medicine & Science, 16*(2), 65-74.

Watson, D., & Clark, L. A. (1994). *The PANAS-X manual for the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schedule-expanded term*. The University of Iowa, Iowa City, Iowa.



dCollection @ chosun

부록: 설문지

#

# 안 내 문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무용을 전공하는 여러분의 열정과 실기수업에서 경험하는 정서, 그리고 이러한 정서경험이 여러분의 수행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지는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거나 느끼고 있는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는 옳고 그른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작성해준 설문조사의 내용은 여러분의 무용에 대한 태도와 성취동기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 5.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무용교육전공 위 재 연

**※ 다음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거나 직접 응답하여 주십시오.**

1. 학 년 : ① 1학년 ____ ② 2학년 ____ ③ 3학년 ____

2. 성 별 : ① 남자 _____ ② 여자 _____

3. 무용전공 : ① 발레 ____ ② 한국무용 ____ ③ 현대무용 ____

4. 무용경력 : 만 _____ 년 _____ 개월



dCollection @ chosun

A. 무용 열정 질문지

| [질문] 무용에 대한 나의 열정은? | 전혀 아니다 | | 보통 이다 | | | | 매우 그렇다 |
|---|---|---|---|---|---|---|---|
| 1. 무용은 나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끔 해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2. 무용을 통해 얻는 새로운 경험은 나에게 그 이상의 가치를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3. 무용은 내 기억에 남을만한 경험을 가져다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4. 무용은 내가 지닌 가치를 보여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5. 나의 삶에서 무용은 다른 활동과 조화를 이룬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6. 무용에 대한 나의 열정은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7. 나는 무용에 푹 빠져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8. 나는 춤추고 싶은 충동이 매우 강해서 무용을 할 수밖에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9. 나는 무용 없이는 살 수가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0. 무용이 없는 나의 삶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1. 나는 정서적으로 무용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2. 나는 무용에 대한 욕구는 통제하기 힘들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3. 나는 거의 무용에 집착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 14. 무용수업/연습 결과에 따라 내 기분 상태가 좌우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dCollection @ chosun

B. 정서 질문지

| [질문] 무용시간에, 나는 _____ | 전혀 아니다 | 아니다 | 그저 그렇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활기찬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흥분된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불안한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심란한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상쾌한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소극적인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기분 좋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짜릿한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화가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시원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신경질 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열정적인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신나는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답답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우울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명랑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지루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짜증난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행복한 | ① | ② | ③ | ④ | ⑤ |
| 20. 싫증난 | ① | ② | ③ | ④ | ⑤ |



dCollection @ chosun

C. 수행만족 질문지

| 전혀 만족하지 않음 | | | | | 보통 | | | | | 완전히 만족함 |
|---|---|---|---|---|---|---|---|---|---|---|
| 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dCollection @ chosun